

김호진·김지호 부부 '일밤-은위' 출연료 기부
배우 김호진·김지호 부부가 MBC 예능프로그램 '일밤-은밀하게 위대하게' 출연료를 이웃돕기에 기부했다. 홍보대행사 스토리라이프는 25일 "김호진·김지호 부부가 '은밀하게 위대하게' 출연료를 장애인 복지시설인 안산 평화의집에 기부했다"고 전했다.



김호진



2016 KBS 연예대상을 수상한 김종민(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이 동료 방송인들의 축하 속에 수상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제공 | KBS

KBS 연예대상 김종민 “1박2일 제작진·동료 힘 컸다”

2007년부터 원년멤버로 9년 동안 활동
유재석·강호동·차태현에게도 감사인사

대상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목소리다. 25일 새벽까지 동료들과 뒤뚱이하며 축하의 시간을 보낸 김종민은 “실감은커녕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얼떨떨함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새벽 1시가 되어서야 확정된 '2016년 최고 예능인'이라는 기쁨이 목소리에서 넘쳤다.

김종민은 KBS의 간판프로그램 2TV '해피선

데이-1박2일'로 2016 연예대상을 수상했다. 4시간여 진행된 시상식의 마지막 주인공으로 무대에 오르며 영광의 순간을 맞았다.

스포츠동아와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 2007년부터 원년멤버로서 9년 동안 함께 한 시간이 주마등처럼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듯했다.

“9년을 해올 수 있었던 데에는 '1박2일' 제작진과 동료들의 힘이 컸다. (유)재석이 형의 도움으로 처음 예능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이후 (강)호동이 형과 (차)태현이 형이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능력과 실력에 비해 너무나 과분한 상을 받았다.”

코요태로도 활동 중인 김종민은 어리바리한 말투와 행동으로 예능계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박2일' 시즌1에 고정으로 합류한 그해 이후 군 복무 2년을 제외하고는 현재 방송 중인 시즌3까지 출연하며 망가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을 내던져 시청자에게 웃음을 안겼다. 또 때론 감동을 전하며 “믿고 응원해준 시청자 힘”으로 프로그램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았다. 최근 방송한 '김종민 특집'에서는 군 제대 후 복귀했을 당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하며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무엇보다 김종민의 대상 수상이 더욱 뜻 깊은 건 주변에서도 이를 더욱 바랐다는 점이다. 시청자와 누리꾼은 물론 동료들까지 나서서 대상 수상자로서 마땅한 인물임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김종민은 “어제도 말씀드렸다고서 저보다 대상을 원하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다”며 “감사하게 잘 받겠다”고 했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제가 한 것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셨기에 이런 큰 상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뿐이다.”

백술미 기자 bsm@donga.com

한한령 뺨 치는 '전지현 파워'

(한류금지령)

중국 7개 브랜드 광고모델 활동중
국내 출연 CF 의류 초도몰량 완판

전지현이 막강한 스타파워를 자랑하고 있다. 주연 드라마 SBS '푸른 바다의 전설'이 높은 기대를 받았지만 이를 충족할 만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 가운데서도 그 이름값은 여전히 국내외에서 통하고 있다.

사실 '푸른 바다의 전설'은 평균 17%의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워낙 기대와 관심이 높았던 상황에서 '자기복제' 등 이유로 실

패한 드라마로 분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지현 역시 전작 '별에서 온 그대'와 같은 돌풍은 일어나지 않아 대중의 인기가 한풀 꺾인 것이 아니냐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지현은 톱스타로서 임지를 여전히 굳건히 지키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방송관계자에 따르면 전지현은 대형 한류 스타의 영역을 구축하게 된 중국 시장에서 아직도 높은 몸값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조성된 '한한령'(한류금지령)의 분위기에도 그에게 쏠린 관심은 막지 못했다. 소속사 문화창고 관계자는 25일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전지현

현지 주요 도시에서 전지현의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며 “현재 중국에서만 7개 브랜드의 광고모델로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한국소비자포럼과 중국 인민일보

가 함께 현지 누리꾼 30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7년 활동이 가장 기대되는 한류스타 10'의 설문조사에서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드라마가 정식으로 판권 수출이 되지 않았음에도 현지 팬들은 불법 다운로드, 즉 '해적판'을 통해 전지현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전지현의 파워는 좀처럼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컴백과 동시에 각종 광고를 섭렵한 후 최근 새롭게 분장하는 한 스포츠 의류 모델로도 낙점됐다. 해당 업체는 조만간 이를 공개하고 전지현을 앞세워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 전지현이 광고 모델로 나선 아웃도어와 여성의류 업체들은 '전지현의 효과'로 초도 몰량이 완판되며 성과를 얻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빅뱅, 음반매출 395억원 '일본내 전체 7위'

일본 오리콘 발표 2016년간랭킹
케이팝 가수로는 10위권내 유일

그들 빅뱅이 2016년 일본에서 가장 높은 음반 매출을 기록한 케이팝 가수가 됐다. 앞서 올해 일본 콘서트 관객 동원 1위를 차지한 바 있어 일본의 군 입대를 앞두고 국내외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일본 음악전문 매체 오리콘이 24일 발표한 연간랭킹에 따르면 빅뱅은 '2016년 아티스트별 연간 음반 매출'에서 38억4460만엔(약 395억원)으로 7위에 올랐다. 케이팝 가수로는 유일한 톱10 진입이다.

121억8330만엔(약 1251억원)을 기록한 1위 아라시와 격차가 크지만, 빅뱅은 2월 현지에서 발표한 '메이드 시리즈' 음반으로만 이뤄낸 성과여서 의미가 깊다. 빅뱅은 '메이드 시리즈'를 CD+DVD 버전, CD+블루레이 버전 등 7가지의 다양한 버전으로 발표했다. 오리콘은 일본 전역의 약 2만3800개 온오프라인 매장의 실제



빅뱅

판매량을 바탕으로 순위를 집계했다.

앞서 빅뱅은 일본 매체 니케이엔터테인먼트가 발표한 가수별 2016년 콘서트 관객 동원 순위에서 60회 공연으로 185만9000명을 동원해 1위에 오르며 명실공히 케이팝 대표 가수로 인정받게 됐다.

올해로 데뷔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벌인 빅뱅은 내년 2월 탐의 입대 이후 완전체 활동을 한동안 중단한다. 빅뱅의 3집 '메이드 더 폴 앨범'은 빌보드 앨범 차트인 빌보드200에 172위로 진입하는 등 미국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김원경 기자 gyummy@donga.com

“따뜻한 보검씨” 박보검의 ‘훈훈한 연말’

연극 ‘꽃의 비밀’과 ‘우리의 여자들’ 관람
드라마 인연 배종옥·이청아·안내상 응원

연기자 박보검이 주변 선후배를 챙기며 2016년을 마무리하고 있다.

박보검은 최근 배종옥과 안내상이 각각 출연하는 연극 '꽃의 비밀'과 '우리의 여자들'을 관람하며 이들과 만났다.

'2016-2017 아시아 투어'의 올해 마지막 무대였던 17일 홍콩 팬미팅을 마치고 귀국한 그는 배종옥이 2년 만에 오르는 연극 무대에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 배종옥과 함께 출연하며 처음으로 연극에 도전하는 이청아도 함께 했다.

이들의 인연은 2013년 MBC '원더풀 마마'에서 시작됐다. 박보검이 지금과 같은 인기와 화제의 중심에 오르기 전 출연작으로, 박보검은 '날라리'이지만 애교 가득한 캐릭터를 맡아 배종옥과 훈훈한 엄마와 아들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청아 역시 '원더풀 마마'에 출연한 바 있

어 거의 3년 만에 세 사람이 한 곳에 모이는 뜻 깊은 만남이 성사됐다.

박보검은 '구르미 그린 달빛'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안내상의 무대도 찾았다. 이 자리에는 역시 '구르미 그린 달빛'의 동료 광동원이 동행하기도 했다. 박보검은 안내상과 '원더풀 마마'를 통해서도 우정을 쌓아 더욱 눈길을 모은다.

박보검은 이후 연말에도 바쁜 시간을 보낸다. 29일 '2016 KBS 가요대축제'와 31일 '2016 KBS 연기대상' 진행자로 나선다. 앞서 24일 '2016 KBS 연예대상' 시상자로도 참여해 KBS의 대형 무대에 모두 '출석'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학업도 놓치지 않고 있다. 명지대 뮤지컬학과에 재학 중인 그는 12월 특히 바쁜 행보 속에서 홍콩 팬미팅 전 기말고사도 충실히 마친 바 있다.

백술미 기자 bsm@donga.com

연예뉴스 스테이션

김새롬·이찬오 결혼 1년만에 협의 이혼

2015년 8월 세프 이찬오와 결혼했던 방송인 김새롬이 1년여 만에 파경을 맞았다. 김새롬과 이찬오는 협의 이혼을 결정하고 23일 서울가정법원을 찾아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김새롬 소속사 초록배이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두 사람은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현재 협의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서로 다른 직업에서 오는 삶의 방식과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별거 기간을 거치다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서태지, 딸 사진 공개하며 성탄 메시지 전해

가수 서태지가 25일 딸의 최근 모습과 함께 성탄 메시지를 전했다. 서태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기다리던 성탄절이지만 온 나라가 매일 혼란을 겪고 있으니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요즘 우리는 슬픔과 분노로 지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에게겐



서태지

편찮은 미래가 있으니 분명히 전과 다른 2017년이 될 거라 생각한다. 오늘날만큼 다들 기운내고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과 육아의 병행으로 어느 아빠들처럼 살짝 맞닥터 간 상태지만 그래도 잘 지내고 있다”면서 훌쩍 성장한 딸 사진을 공개했다. 서태지는 2013년 배우 이은성과 결혼해 2014년 8월 딸을 얻었다.

국제변호사 활동 가수 이소은 23일 결혼

국제변호사로 활동 중인 가수 이소은(34)이 23일 서울 여의도동의 한 음식점에서 가족과 가까운 지인을 초대해 결혼식을 올렸다. 이소은은 남편을 미국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은은 현재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상업회의소(ICC) 뉴욕지부에서 부의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998년 '서방님'으로 데뷔했고, 새로운 꿈을 위해 2009년 미국 시카고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해 국제변호사가 됐다.

세븐, 대만 MTV 아시아 대세 댄스가수상

가수 세븐이 22일 대만 타이베이 원만극장에서 열린 'MTV 최강을 파이널-아시아 대세 뮤직 콘서트'에 참석해 대만 MTV로부터 아시아 대세 댄스가수라는 의미의 '최강댄스남신' 트로피를 받았다고 소속사 일레븐나인이 25일 밝혔다. 세븐은 이날 콘서트에서 '베터 투게더' '디지털 바운스' 등 4곡을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선보였다. 세븐은 "2017년 2월 대만에서 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 중이다"고 밝히 뜨거운 환호를 얻었다.



세븐

레드벨벳 웬디, 리키 마틴 디지털 싱글 피쳐링

걸그룹 레드벨벳 웬디가 팝스타 리키 마틴의 디지털 싱글 '벤티 파카'(VENTE PA'CA)에 피쳐링 아티스트로 참여했다. 싱글은 27일 국내 음악사이트와 아이튠즈, 스포티파이 등 전 세계 음악 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이다. '벤티 파카'는 팝과 레게가 어우러진 클럽 댄스 히트 트랙으로, 리키 마틴이 9월 콜롬비아의 아티스트 말루마와 스페인어로 발표한 곡이다. 웬디는 새롭게 제작된 영어 버전에 참여했다.

영화 랭킹

자료:영화진흥위원회
12월 18일~12월 24일

1위 영화
정보보기



순위	영화	주관관객	누적관객	개봉일
1	마스터	2,086,478	2,099,551	12/21
2	판도라	1,043,673	3,763,038	12/07
3	라라랜드	654,373	1,796,231	12/07
4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456,298	919,564	12/14
5	쌍	322,605	327,824	12/21
6	형	87,848	2,973,149	11/23
7	포켓몬 더 무비 XY&Z	77,650	79,536	12/22
8	신비한 동물사전	66,633	4,646,844	11/16
9	아기배달부 스톡	65,190	311,115	12/07
10	원피스 필름 골드	25,253	213,314	12/08

편집 | 정용호 기자 sadzoo@donga.com